

##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청년 복지인력 배치 협조 당부

-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방문 -
- 종사자 격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등 의견청취 -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4월 11일(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취약 계층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 복지인력 배치(+343명) 관련 예산이 담겼다.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청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추경 현안 협조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 아동 수 지속 감소, 도농 격차 등에 따른 센터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 방과후 돌봄시설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 노후센터 개보수 지원 필요성 ▲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시설 운영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전체 4,176개소 (무료, 이용아동 11만 명, 취약계층 50% 우선 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1,402개소 (월 10만 원 이내 자부담, 이용아동 3.5만 명)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유류비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중장기 대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응한 방과후 마을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임태근	(044-202-3443)



□ **간담회 개요**

○ (일시) '26. 4.16.(목) 11:00 ~ 12:00

○ (장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세미나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메가벤처타워 706호

○ (참석자) 총 28명

- (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장 등 4명

- (전지협) 남세도 회장, 시도 지부장, 권역이사 등 24명

○ (주요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마을돌봄센터 지속가능성 방안,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명칭 변경, 중동사태에 따른 운영 애로사항 의견청취 및 논의

\* 지역아동센터 전체 4,176개소 (무료, 이용아동 11만 명, 취약계층 50% 우선 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1,402개소 (월 10만 원 이내 자부담, 이용아동 3.5만 명)

□ **세부 일정 (안)**

시 간(안)		내 용	비 고
11:00 ~ 11:05	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전지협 사무총장)
11:05 ~ 11:15	05'	■ 인사말	남세도 회장,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11:15 ~ 11:45	30'	■ 현장 의견 청취 및 소통	
11:45 ~ 11:50	05'	■ 마무리 발언	인구아동정책관
11:50 ~ 12:00	10'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